

군산,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추진 청신호

에너지 정책·수용성 제고의 우수사례 칭취

자립도시 군산시가 신산업의 중심인 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 관련 최근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일행이 지역발전 정책모색을 위한 덴마크 해상풍력 단지 시찰을 마치고 돌아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덴마크를 방문한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일행이 코펜하겐에 위치한 그린홍보관(State of green, House of green)을 시작으로 RISO 연구소, Orsted사, 링피빙 시, 에스비에르 항만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바쁜 행보를 마치고 돌아 왔다고 밝혔다.

그린홍보관은 덴마크 비영리 민간 협력기관으로 600개 이상의 기업, 정부와 학술기관, 전문가와 연구원들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에너지 정책과 주민 이해 및 수용성 제고의 우수사례 정보를 청취했다.

RISO연구소는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협력대학이며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 기술 분야 덴마크 내 최고 대학인 DTU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의 연구소로, 설립과정 및 운영체계, 산학협력 현황 등 지역 대학 발전의 선진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Orsted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단지를 완공한 덴마크 최대 발전회사로, 풍력 사업의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우리시 방문단의 주요 궁금증을 해결했다.

덴마크 서쪽에 위치한 에스비에르에서는, 에스퍼 프로스트 라스무센 에스비에르 시장을 만나 양 시(市)의 정책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공유했으며, 인근 에스비에르 항만, 대규모 발전단지에 차례로 시찰했다.

에스비에르는 덴마크 5대 도시로, 오일과 가스 중심의 항구도시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항만으로 변화했으며, 현재 유럽에 설치된 해상풍력 용량의 4/5 이상이 이곳에서 출하되고 있다.

에스비에르 시는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군산 해역에 조성될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배후 항만 역할을 하게 될 군산시의 미래 모습과 유사해, 현장 시찰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일행이 지역발전 정책모색을 위한 덴마크 해상풍력 단지 시찰을 마쳤다.

특히, 이번 방문의 목적인 해상풍력의 도입 과정과 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시간으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방안, 어민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11일 귀국으로 덴마크 일정을 마무리한 방문단 일행은 "해상풍력 사업의 세계적인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우리 지역에 최적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행보를 계기로 군산시는 새만금 내·외부에 조성 예정인 GW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도 미세먼지 저감 평가 '최우수'

부서간 협업 대응체계 구축·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호평

군산시가 도내에서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실시한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결과 1등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상반기 업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군산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항목은 ▲기관장 관심도 및 타부서 협업사례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지원 사항 및 집행률 ▲친환경차량 보급 및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간담회 개최 등 홍보실적 ▲시·군 자체 특수사업 추진 등 5개 부문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군산시는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 이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련 실무과장들에게 직접 미세먼지 저감사업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부서간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관장 관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확대 등 저감사업 예산규모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기차 보급, 건설공사장 관리, 불법소각행위(뽕 및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 상시 감시, 도로청소차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울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교육, 간담회 실시 등 타부서 협업체계 및 시 자체 예산사업 발굴에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는 올해 초 유래없이 극심했던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미세먼지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자 강임준 시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저감사업 정부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강임준 시장은 친환경차량인 전기차 이외에도 수소차 보급에도 선도 도시가 되고자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 2020년 정부예산 확보하고자 직접 환경부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였다.

군산시는 상반기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더욱 확대 해 나가면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 등의 정부시책에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10월경부터 다음해 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령이 예상되는 비상저감조치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환경부 및 전라북도와 연계되는 단속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차량규 환경정책과장은 "전북도에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를 종합, 연말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1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은 환경부서만이 아닌 군산시 전체로 보아야 한다"고 협업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맞춤형 복지 시민 삶의 질 향상

다자녀 가구, 출산 장려금·공과금 감면 혜택

익산시는 다자녀와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각 가구별 특성에 따라 지원금과 세금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우선 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이 지급된다.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1천만 원 등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 금액을 확대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도 다양하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계절별 최대 월 6천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은 금액의 30% 내에서 지원된다. 상·하수도 요금도 3자녀 이상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세대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익산=장인천 기자

연 합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가구는 연 1.2%~2.1%로 전세자금금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권도 주어진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한부모 가정 세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아동양육비와 자녀 학용품비,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안전점검

군산시가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안전점검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안전담당 등 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군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협조아래 소방·전기 시설 등을 점검했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요령과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홍보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산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시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해 모든 시민들이 여름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보건소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2019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표본가구를 선정된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계

측조사(혈압, 신장, 체중)와 1: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동시 실시하며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등 21개 영역 211개 조사문항을 조사원이 직접 방

식으로 운영된다. 조사대상 가구에 8월 중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선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며 조사원 6명이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고 응답자에게는 1만원 상품권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보건소 건강도시계 (☎ 460-322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

익산사랑장학재단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온라인강의 수강권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공고일 이전에 익산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이 수강권으로는 2만여 개의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중등부·고등부)를 365일 내내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수강권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통합예약·인터

넷 접수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순 400명에게 지급한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수강권 지원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의 자양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시민여러분들이 장학재단에 보내준 사랑을 되돌려 주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작한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 사업은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의 97%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